

남원 농특산물 국내외 판로 개척

시, 4개 유통·수출업체 상담 농산물 200억원 납품 상담 딸기·계란 등 50억 수출 협의

남원시가 명품 농특산물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농·축·특산물 수출 확대와 국내 대형 유통매장 납품 확대를 위해 서울과 대전 국내외 수출업체 4개소를 방문해 상담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상담은 지난 14-15일 남원시 원예산업과장,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5개 농협 산지유통센터 센터장, 전북농협 연합사업단장, 농협 남원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남원시는 농협경제지주 대외마케팅부와 이번 상담을 통해 올해 국내 대형유통매장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유통에 딸기, 복숭아, 포도, 파프리카 등을 상담했다.

시는 5개 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한 농산물 200억원 이상의 납품 상담과 NH농협무역, 한인홍, 에버굿 등 농특산물 수출업체 3개소를 통해 딸기, 포도(캠벨, 사인머스켓), 복숭아, 배, 양파, 파프리카, 사과대추 등 농산물과 계란 등 축산물 수출 상담을 통해 50억원 이상 수출하기로 협의했다.



남원시 원예산업과장과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국내외의 수출업체 4개소를 찾아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관계자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매출실적 전북 최초로 지난 2023년 1156억원을 달성하고 올해에는 이 이상 달성하기 위해 공동선별 확대와 품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수출지원 확대를 통한 2000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미국 H마트, 한남체인 등에 김부

각, 추어탕, 치즈떡을 수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올해는 신규 품목 발굴과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프랑스 까르푸 매장 진출과 홍콩, 베트남에서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개최하겠다”면서 “수출경쟁력 확보와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비제조업도 중기 육성자금 대출

경영 안정·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창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에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제조업체와 더불어 비제조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신청·신청받기 시작한 현재 6개 기업에 총 25억원의 대출 승인을 완료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이차 보전율을 상향(4%→5%)하고, 용자 용도를 확대해(운전자금→운전 및 시설자금) 고창관내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19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에 대해 3억 40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고창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거나 휴·폐업 및 국제·지방세 체

납 기업, 비제조업종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운전 및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금에 대해 연 5% 이내의 이차보전금이 최대 4년간 지원된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원(제조업 5억원 이내, 비제조업 3억원 이내)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저금리 자금지원 정책이 지역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개 사육농장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접수

정읍시, 특별법 시행에 절차 착수...미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정읍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나섰다.

정읍시는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운영 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인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

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특별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사육 농장을 미 신고 할 때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종식 이행 계획 점검과 동물 학대 방지 등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한 내에 신고서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북교육청, 위원회 대대적 손질

분기별 현황 점검...TF 구성해 폐지·통폐합 추진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보다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에 나선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왔지만 뚜렷하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교육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정 등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립된 위원회 관리 계획안은 조정·통합·자문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주요 개선 내용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위촉 시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위원회 예산의 적정 계상 및 집행 ▲1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비법정 위원회 폐지 등이다.

도 교육청은 분기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TF 운영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폐지 및 통합 등에 나설 계획이다.

임경진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협력과장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걸맞게 위원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그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농기계 보험료 80%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 농업방제용 드론.

경운기 등 12종 대상 9억 투입

정읍시가 올해 8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기계 운영시 사고를 보상하는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시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인 농업인이 20%를 자부담하면 시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준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SS분무

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 동력 운반차, 농용로우더 총 12종이다.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까운 농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장해 안정적인 영농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착한 가격 업소’ 찾습니다

22일까지 신청...공과금 등 혜택

남원시가 이용료가 싸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에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요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1년간 상수도 요금 30% 감면, 종량제 봉투 및 주방용품 지원, 전기 안전 점검 등

의 혜택을 준다.

지방세 체납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한다.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전자우편(shj5831@korea.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수목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